

外人 순매수 유입 지속... “코스피 2700선 돌파 가능성”

外人, 올해 들어 약 11兆 순매수
지난달부터 순매수액 규모 급등
반도체주·저PBR주 비중 높아
美 AI주 상승밸리에 투심 자극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의 기대의 못 미치면서 국내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도 3월 내 코스피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약 11조2928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은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했던 지난 1월 19일부터 본격화됐다.

이날 이후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3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2월부터는 순매수액 규모가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액〉

2023년 12월	약 3조9842억원
2024년 1월	약 2조9516억원
2024년 2월	약 8조2412억원
2024년 3월(6일 기준)	6234억원

/한국거래소

급격히 증가했다. 외국인들의 올해 1월 순매수액은 2조9516억원이었으며, 2월에는 그에 2배를 뛰어넘는 8조2412억 원을 기록하면서 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외국인들이 1월 1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담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반도체주와 저주가순자산비율(PBR)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에 따라 최근 한 달간 코스피시장에서 차지하는 저PBR주의 중요도도 상당했다. 외국인들은 해당 기간 동안 대표적인 저PBR주로 꼽히는 현대차를 1조7942억원 가량 순매수하며 가장 많

이 답았다. 이외에도 삼성물산(6309억원)과 기아(6228억원)를 사들이면서 밸류업 정책 수혜주에 대한 투자를 지속했다. 또 다른 수혜 종목인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주들이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저PBR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주의 상승밸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도 자극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동일 기간 동안 SK하이닉스를 1조4894억원, 삼성전자를 1조3918억원씩 사들이면서 각각 현대차를 이어 순매수 상위 2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사실상 강제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의 아쉬움을 사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유입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이 발표됐던 26일 이후에도 외국인들은 2거래일을 제외하고 순매수세를 지속했다. 다만 전날이었던 5일 458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6일에도 3832억 원을 팔아 치우면서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다.

반면, 증권가에서는 3월 코스피지수가 최대 28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저PBR주의 숨고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삼성증권은 2500~2800을 제시하면서 가장 높은 상단을 예상했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 2400~2750, 현대차증권 2560~2720, 한국투자증권 2550~2750, 키움증권 2520~2740 등이 예상 밴드를 제시했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모두 2700선은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스피지수가 2700선을 넘어간 것은 2022년 4월이 마지막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PBR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방 경직성이 개선되면서 지수 하단 레벨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지수 저점이 높아질수록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잠재력도 높아지는 편이라는 점에서 3월에는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2700선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 코스피는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로 펀더멘털과 무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며 “하지만 3월부터는 다시 경제와 실적 등 기본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국과 미국이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AI 관련주를 확보해야 기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코스피 빛투 급증... 신용잔고 9863억 증가

금투협 “신용거래잔고 18.5兆”
코스피서 두드러져... 10兆 근접
전망치 상향조정에 빛투 더 늘 것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빛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규모가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증시 추가 상승을 점치는 의견이 늘고 있어 ‘빛투(빛내서 투자)’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잔고는 18조5457억 원으로 한 달 전(17조5594억 원)에 비해 9863억 원 늘어났다. 올 들어 신용거래잔고는 17조 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달 19일 이후 18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신용거래잔고는 코스피에서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의 신용거래잔고는 9조9234억 원으로 10조 원에 근접했다. 두 달 전인 지난 1월 3일(8조9097억 원)에 비해 1조 원 넘게 급증했다.

신용거래잔고는 투자자들이 증권사

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빛투 증가 배경에는 올초 정부의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 발표에 더해 인공지능(AI) 테마 밸리가 지속되면서 주식시장 전반에 포모(FOMO·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돼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는 증상)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실제로 연초 이후 신용거래잔고가 크게 늘어난 업종은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인 자동차(48%), 은행(42%), 보험(36%) 등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적·투기적 거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빛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AI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빛투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가 최근 코스피 지수 전망치

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빛투에 나서는 투자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기업 의견 수렴, 6월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 예정 등 상반기 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정책 모멘텀이 추가로 대기하고 있다”며 “3월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부에선 3월 증시는 숨고르기 국면에 돌입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빛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한 달 정도 전만 하더라도 3월 인하 시작, 연내 7회 인하를 기대하고 있던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연내 3회 정도, 6월 인하 시작으로 많이 후퇴했고,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시장을 크게 흔들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연내 기준금리 인하 불가 주장도 등장하는 등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지난해 물적분할 상장사 19곳... 45.7% 감소

금감원 “투자자보호 노력 지속할 것”

지난해 물적분할에 나선 상장사들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추진 건수는 19건으로 전년 대비 16건(45.7%) 감소했다.

물적분할은 자산·부채를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母)가 분할된 신설회사(子)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방식이다. 일반주주는 모회사를 통해 자회사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매

수청구권 도입과 상장심사 강화 등의 제도가 시행 중이다.

회사들은 강화된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물적분할 관련 구조개편 계획과 검토 내용, 주주보호방안 등의 항목을 누락 없이 공시했다. 다만 분할의 목적이나 효과 등을 기재하면서 구체성이 다소 미흡했고, 자회사 경영권 양도 등 구조개편 계획을 변경할 때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주주총회에서는 물적분할이 의결된 13개사가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고, 총발행주식 대비 평균 0.9%의 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 한 곳

은 주주의 대규모 청구권 행사로 분할을 철회하기도 했다. 다만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해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경우도 있었다.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하면서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에 대한 거래소 심사도 강화됐다. 한 곳은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자기주식 매입·소각, 현금배당 등 자회사 상장시 다양한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사들이 물적분할을 하면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양증권, 임재택 대표 재선임 안전 상정

재선임 확정 시 4연임

한양증권이 임재택 현 대표이사(사진)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을 상정했다. 재선임이 확정되면 임 대표는 4연임을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오는 21일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임재택 현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을 상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외에도 진중신 한양증권 비즈조직 총괄 등 2인의 사내이사 선임 및 박종민 산업은행 통합위원회 외부위원 1명의 사외이사 재선임건을 함께 올렸다.

임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양증권



대표의 자리를 지켜왔다. 오는 21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이후 사실상 4연임에 성공하게 된 셈이다.

임 대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원칙 중심 경영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학습조직 ▲디테일에 강한 증권사 등 2024년 세가지 경영 목표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조직의 사명과 장기 발전, 조직 구성원의 행복, 정의로움과 도덕성이 원칙”이라며 올해를 ‘자기자본 1조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막을 여는 원년’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콤, 복수거래 시장환경 대응 나서

‘SOR 솔루션’ 시연·설명회

코스콤이 코앞으로 다가온 복수거래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해 ‘SOR(Smart Order Routing)솔루션’ 개발을 완료하고, 증권사를 대상으로 시연 및 설명회에 나선다.

코스콤은 오는 7일 여의도 본사에서 국내 증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복수거래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한 ‘SOR솔루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솔루션을 활용해 통합시세 환경에서 투자자의 주문이 설정된 규칙에 따라 최선집행되는 과정을 시연할 계획이다.

SOR솔루션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는 ‘최선집행의 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2025년 대체거래소(ATS)의 출범이 예고됨에 따라 각 증권사는 한국거래소(KRX)와 ATS 중 더 유리한 조건의 거래 시장을 결정해주는 SOR솔루션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코스콤 SOR솔루션의 강점은 각 거래소의 시세를 직접 수신한다는 점이다. 솔루션에서 자체적으로 시세를 통합해 산출함으로써 가장 빠르게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유리한 거래 시장을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코스콤은 개별 투자자가 최선 집행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유연한 규칙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떤 규칙을 통해 주문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적 자료 제공 기능과, SOR 처리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정기우 코스콤 금융사업본부 본부장은 “SOR솔루션이 손조롭게 개발 완료돼 증권사 관계자분들께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설명회 이후 개별 증권사와의 협력을 통해 순차적으로 솔루션을 설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시작될 ATS 연계 테스트도 완벽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